

허무와 싸우는 인생 vs. 약속을 붙드는 인생 (창 4:13-26)

1. 하나님의 징계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3-14절)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15절)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 (1)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에 '죄의 결과(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또한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인이 받은 형벌은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그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은 '표'를 주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라고 하시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가인이 범죄자라는 낙인인 동시에, 또한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가인의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부르며 죄가 증폭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의도입니다.

나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정처 없음과 불안, 두려움입니다.

요즘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거주합니까?(16절) 그 후 가인은 무엇을 합니까?(17절)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낯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 (1)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낯' 땅에 거주합니다: '낯'은 '방황함, 유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인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떠돌며 방황하는 '뿌리 뽑힌 인생'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 (2) 그 후, 가인은 자신의 뿌리 뽑힌 운명과 처절하게 싸웁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에녹(시작, 개시)'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아들을 통해 도시와 문명을 일구고 새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은 '성공한 도시 건설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실제 인생은 그가 살았던 낯 땅의 이름처럼 '정처 없이 유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심 없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 (3)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쫓으며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리는 것이 참된 평안과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어떤 인물입니까?(19절, 23-24절) 라멕의 아들들은 어떤 인물입니까?(20-22절)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로다 하였더라

- (1) 1) 라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라멕은 아다와 쉴라,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즉, 라멕에 이르러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일처제의 결혼 질서가 무너집니다.
- (2) 2) 라멕은 살인과 보복을 자랑했습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인 것과 자기를 멍들게 한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인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 (3) 3)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교만한 인물입니다: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증폭을 막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벌을 내리시지만, 라멕은 필멸의 인생이 불멸의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과 자기보존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 (4) 라멕의 아들들은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킨 인물들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고, 두발가인은 구리 세공업자로서 당시 최첨단 기술자였습니다.
- (5) 우리는 악인들의 미래성 같은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이르는 동안에 문명과 기술이 크게 발달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인생의 허무와 싸우며 만들어 낸 성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할 복은 영원한 복과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행동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허무뿐인 성공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 나의 시각과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4.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은 누구입니까?(25절)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어떻게 다를까요?(26절)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 (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셋을 낳았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 (2) 가인의 후손은 인생의 허무와 싸웠고, 셋의 후손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짓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약함, 필멸”입니다. 셋의 후손은 인생의 약함과 필멸성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처럼 인생의 허무와 필멸성과 싸우지 않고 불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 (3) 진짜 승자는 약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약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땅을 차지할 승자는 약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나눔

나의 약함과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